

협회소식



◀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병원협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테스포팀’ 구성해, 법안 분석키로

병원협회는 1월 23일 오전 7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긴급상임이사회는 먼저 협회 기획부장으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한 협회의견에 관한 설명과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으로부터 법안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 중 병원들에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병원협회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회 내에 테스포팀을 구성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협회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 병원감염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병원협회, 이기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한병원협회와 이기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병원감염관리 제2차 정책토론회가 1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가 '병원감염관리 활성화 위한 기반 구축'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감염내과 강문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오명돈 교수(서울대학병원 감염내과), 이해각 팀장(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팀), 신성식 차장(중앙일보), 박완주 보좌관(이기우 국회의원실), 임종규 팀장(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등이 나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정책토론회 개최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3차에 걸쳐 사전회의를 갖고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및 토론회내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 2007년도 제1차 건강보험 연수교육

2007년 첫 건강보험 연수교육이 2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교육에서는 건강보험 당면 현안 및 과제(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를 비롯해 환자분류체계(심평원 종합관리기획팀 최명례 부장),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로 차등제(심평원 수가기준부 심재욱 차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협회소식



▶ 병협-성모병원 성명서 발표

KBS 뉴스보도 부적절성 지적

지난 2월 1일 밤 9시 KBS 뉴스에 보도된 '사상 최대 의료보험료 부담 청구적발' 내용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보도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병원협회와 성모병원은 'KBS 뉴스보도 내용에 대한 성모병원의 입장' 이란 성명서를 통해 "얼마전 백혈병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그 동안 쌓아온 성모병원의 대외적인 명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그 동안의 진료행위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으로 복지부 실사에도 적극적인 협조하며 수검을 받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일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이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반대

지난 2월 5일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병협은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하여 자금과 같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 김철수-장동익 회장 회합

의료법 개정, 심도있게 논의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2월 8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과 만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날 회합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료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궤기대회에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병협회장은 "개정 의료법(안)의 세부조항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의사협회와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없다"면서 "같은 정책이나 법률이라고 해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각자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날 양 단체 수장 회합은 시종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공감대와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